

제목	국문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nurses							
저자 및 소속	국문	어강희, 노재훈 ¹ , 원종욱 ¹ , 김규상 ² , 송재석 ¹ , 박근철 ¹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¹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²							
	영문	Kanghee Eo, Jaehoon Roh ¹ , Jong-Uk Won ¹ , Kyoo-sang Kim ² , Jseseok Song ¹ , Keun-Chul Park ¹ <i>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¹,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²</i>							
분야	환경 및 산업보건 [산업보건관리]	발표자	박근철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이다.</p>									
<p>2. 방법 서울과 인천에 소재 한 4 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1년 4 월 24 일부터 5 월 4 일까지 NIOSH 의 표준화된 설문지와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243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p>									
<p>3. 결과 각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등/허리가 가장 높은 44.4%였고, 다리/무릎/발은 42.8%, 어깨 33.3%, 목 25.1%, 팔/손/손목 16.5%의 순이었다. 부위별 증상 호소율의 차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변량 분석 결과 연령과 근무부서, 총 근무경력에 따라서 등/허리와 다리/무릎/발 부위가 유의하였고 기혼 간호사들의 가사 관련 요인 중 결혼기간, 가사 소요시간, 가사 보조자 유무는 근골격계 장애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기혼 간호사의 경우 다리/무릎/발에 영향을 주었다. 업무 스트레스 요인 중 업무량 과중 및 신체적 부담 시 어깨에 증상을 호소하였고,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시 팔/손/손목에 증상을 느꼈다. 다변량 회귀 분석결과 등/허리 부위의 증상 호소에서 일반병동과 신생아실 근무자에 대한 수술실과 중환자실 근무자의 비차비는 3.23(95% CI=1.72~6.20), 평균 휴식시간의 비차비도 0.97(95% CI=0.95~0.99)이었다. 다리/무릎/발 부위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근무자의 비차비가 1.91(95% CI=1.02~3.62), 부양자가 없을 때의 비차비가 4.08(95% CI=1.08~20.40)로 중환자실과 수술실 근무자가 등/허리 통증이 많았으며, 평균 휴식시간이 짧을수록 등/허리의 통증이 심했다. 다리/무릎/발의 통증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근무자, 연령이 낮고 부양자가 없는 근무자에게서 높았다. 다리/무릎/발 부위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근무자의 비차비가 1.91(95% CI=1.02~3.62), 부양자가 없을 때의 비차비가 4.08(95% CI=1.08~20.40)로 중환자실과 수술실 근무자가 등/허리 통증이 많았으며, 평균 휴식시간이 짧을수록 등/허리의 통증이</p>									

심했다. 다리/무릎/발의 통증은 증환자실과 수술실 근무자, 연령이 낮고 부양자가 없는 근무자에게서 높았다.

4. 고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추후 연구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측정에 있어 인체공학적 작업 계측을 통하여 주관적 호소증상 외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분석역학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